

정부 첫 선정 '올해의 섬'에 신안 가거도

3000세대 거주 최서남단 도서 영해기점 유인도 7개 매년 선정 해양 영토 보존 역할 가치 홍보 "소멸 위기... 지속가능한 섬 노력"

정부가 선정하는 '2023년 올해의 섬'에 대한민국 최서남단에 위치한 신안 가거도가 선정돼 눈길을 끌고 있다.

행정안전부와 해양수산부는 해양 영토 보존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섬의 가치를 홍보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2029년 1월까지 매년 1월마다 영해기점 유인도 7개를 '올해의 섬'으로 공동 선정하여 소개하기로 했다. 이 중 사람이 거주하는 유인도는 7곳(가거도·상왕등도·여서도·거문도·홍도·여청도·횡도), 사람이 살지 않는 무인도는 13곳이다.

올해 처음으로 이름을 올린 가거도는 신안군 흑산면에 속한 대한민국 최서남단에 위치한 섬으로 300여 세대가 거주하는 섬이다.

옛날부터 우리나라와 중국 사이의 해상 길목이자 경계를 이루는 섬으로서, 중요한 지리적 위치를 차지한다. 1907년에는 가거도 등대를 세워, 우리 영해로 들어서는 선박에게 대한민국임을 알려주는 동시에, 인근을 항해하는 선박의 안전까지 책임지는 역할을 하고 있다.

가거도는 뛰어난 풍경을 자랑하는데, 독실산 정상과 회룡산·장군바위, 뫼단바위·기동바위, 섬등반도의 절벽·망부석, 구곡 영화·빈주바위, 소등의 일출·망향바위, 남포·해상터널, 극동도 전경과 갈바위 등이 가거도 8경으로 꼽힌다.

특히, 섬등반도에는 대형 송년 우체통이 설치되



올해의 섬에 대한민국 최서남단에 위치한 신안군 가거도가 선정됐다. 좌측 상단부터 시계방향으로 가거도 송년우체통, 가거도 백년등대, 장군바위와 동쪽 몽돌해안, 해돋이에서 본 가거도 북동쪽 해안.

어 있으며, 방문객들의 사연을 담은 편지와 엽서를 연말에 한 번 수취인에게 배달한다.

섬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섬 홍보 누리소통망에서 확인 가능하며, 무인도서에 대한 정보는 해양수산부 '무인도서종합정보제공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진조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지원관은 "섬은 삶의 터전을 제공하고 해양 자원의 보고로 활용되는 중요한 공간임에도 인구 감소 등으로 '섬 소멸' 위

기에 놓여있다"면서 "정부는 '섬 소멸'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섬을 조성하는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현태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정책관은 "2023년에는 해양영토 이용·보전·관리 측면에서 23개 영해기점 섬을 포함한 도서관리계획을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하여 해양영토 주권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팔순 축하금 장학금으로 써 주세요

하의면 장명흠·제갈향덕 부부 신안군장학재단 1000만원 기탁

신안군은 하의면 장명흠·제갈향덕 부부가 지역 인재양성에 써달라며 (재)신안군장학재단에 1000만원의 장학금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사진) 장명흠씨 부부는 하의면 대리2구 주민으로 남편은 전 26대 하의면장을 지냈고 아내는 대리2구 이장을 맡고 있어 부부 모두 지역발전을 위해 일해온 지역인물이다. 부부는 팔순을 맞아 자녀들이 축하금을 보내 주어 여행을 가려 했으나 의미 있는 곳에 쓰고자 기탁을 결정했다고 한다. 장명흠씨는 "평소 지역발전에 힘을 보태고자 고민하던 와중에 자녀들이 팔순 축하금을 보내 주어 의미 있고 소중하게 쓰고자 장학재단에 기탁했다"라며 "우리 지역 학생들이 경제적 어려



움에 구애받지 않고 학업을 유지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장학재단 이사장인 박우량 신안군수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기탁에 필요한 곳이 많았을 텐데 선뜻 기탁을 해주셔서 감사하다"라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전달하여 지역 장학사업에 귀중하게 사용하겠다"라며 감사를 전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신안군, 내년도 국도비 예산 4200억 확보

지난해보다 800억여원 늘어

신안군이 2023년도 국도비 주요 현안사업비를 전년보다 800억여원이 늘어난 4200억원을 확보했다.

더욱이 정부예산에 미반영된 국립 갯벌 세계유산 보전본부 건립사업 외 2건(총사업비 850억원·2023년 국비 35억원)이 국회 심의에서 추가로 반영돼, 신안이 갯벌 산업의 중심지로 거듭나는 계기를 마련했다.

주요 국책사업으로 ▲비금-암태 연도교 건설 236억원 ▲국도77호선(신장-북룡) 시설개량 123억원 ▲국도 2호선(암해-송공) 시설개량 54억원 ▲흑산공항 건설사업 71억원 등 교통SOC사업과 ▲가거도항 복구공사 226억원 ▲흑산도항 개발사업 76억원 ▲영산강IV지구 4-2공구 대단위

농업개발사업 320억원 ▲다목적 농촌우수 개발사업 40억원 ▲수산자원 산란서식장 조성 10억원 등 항만 및 농수산개발사업이 있다.

일반국비 주요사업으로 ▲신안 북부권역 갯벌 식생조립 29억원 ▲암태-추포도 갯벌복원사업 13억원 등 갯벌보전 사업비를 확보했다.

또 ▲어촌뉴딜300사업 193억원 ▲천일염산업 육성 24억원 ▲배수개선사업 42억원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공사 36억원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120억원 등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많은 예산이 확보됐다.

이와 함께 2023년도 균특회계 예산으로 365억원을 확보했다. 또 지방이양 전환사업비 390억원 과 인구소멸대응기금 120억원, 관광활성화 및 다양한 소득사업을 통해 인구 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할 수 있게 됐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

목포시 '전남형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 출범

10개팀 예술 공연·봉사 등 활동

목포시가 청년공동체 활성화사업 출범식을 갖는 등 지역청년 역량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목포시는 최근 목포시청년·일자리통합센터에서 '전남형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 출범식을 갖고 사업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사업은 5인 이상으로 구성된 청년공동체가 지역자원을 활용해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11월 청년공동체를 모집했고, 총 10개팀이 최종 선정됐다. 10개팀은 내년 3월까지 지역에서 다양한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출범식에는 청년공동체 10개팀이 참석해 문화 예술 공연, 홍보콘텐츠 발굴, 지역사회 봉사, 청년 네트워크 구축 등 공동체별 사업을 소개하고, 활동 계획을 공유하며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시는 청년공동체가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과업수행 및 네트워크 활동비를 지원하며 이번 사업을 통해 청년의 지역정착을 유도하는 한편 청년



지난 27일 목포시청년·일자리통합센터에서 열린 전남형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 출범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목포시 제공>

역량 강화 및 지역사회 활동 주제로 성장 등을 위해 뒷받침할 계획이다.

목포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청년공동체들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지역청년들의 역량이 강화되

는 장이 되길 기대한다"며 "청년공동체가 청년의 지역 정착과 성장을 위한 밑거름이 되도록 활동 기반을 강화하고 다양한 지원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목포=장봉선 기자 jbs@kwangju.co.kr

목포시보건소 진료·민원업무 정상 재개

치과·한방·물리치료·진단서 발급

목포시가 1월부터 목포시보건소의 진료·민원업무 전면 재개한다.

보건소는 감염병 집중 대응 및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일부 진료업무만 시행해왔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정점을 지나면서 전염병 대응에 집중했던 행정력을 재경비하고 중단했던 진료를 정상화하기로 결정했다. 재개되는 진료·민원업무는 대면으로 진행되는 ▲치과진료 ▲한방진료 ▲물리치료 ▲운전면허 신체검사 등이다.

한편 급식 및 식품위생법 적용 대상자에 대한 검사인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는 흥부X-선(폐결핵) 검사 결과전문기관으로 전량 판독 의뢰됨에 따라 발급 소요기간이 3일에서 5일로 조정됐다. 다만, 흥부X-선 검사에서 이상소견 발견시 추가 검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은 2-3개월 지연될 수 있다.

'결핵감염성이 없다'는 방문 의료기관의 소견서 및 보건증 접수일 이후 영상의학검사 판독지 첨부 시에는 결과에 따라 추가 검사 없이 발급할 수 있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

영광군 국도 위험도로 개선 국비 385억 반영

백수 대신지구 등 9곳 개선 사업

영광군은 지난달 27일 국토교통부에서 수립한 '국도 위험도로 및 병목지점 개선 7단계(2023~2027년) 기본계획'에 관내 도로구조 취약구간 및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구간 9개소에 385억원의 사업비가 반영됐다고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에 반영된 사업은 총 9개소로 ▲ 위험도로 개선 4개소(백수 대신지구 300억원, 염산 두우지구 25억 원, 흥농 신석지구 15억원, 염산 봉남지구 7억원) ▲교차로 개선 3개소(영광 학정

지구 200억원, 불갑 안맹리 안맹지구 7억 원, 불갑 안맹리 녹산지구 5억원) ▲버스 정차대 2개소 5억 5000만원으로, 7단계 사업기간 동안 투자 우선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7단계 기본계획에 반영된 영광 백수 대신지구 위험도로 개선사업은 지역의 오랜 현안 사업으로 그간 각종민영관수가 국회, 국토부 등 관계기관을 수차례 방문해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한 노력으로 국가계획 반영이라는 최고의 성과를 일궈냈다.

/영광=이종윤 기자 jylee@kwangju.co.kr

진도군 공무원 숙소 입주식

진도읍 교동리에 4층 규모 신축

새로운 진도군 공직자 숙소가 문을 열었다.

진도군은 지난달 30일 진도읍 교동리 일원에 신축한 진도군 공직자 숙소에서 김희수 군수와 입주자 등 공무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입주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사진)

진도군 공직자 숙소는 진도군청 공무원으로 임용된 신규 공무원들의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신축했다.

연면적 2433㎡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지난해 12월에 착공에 들어가 1년여의 공사기간을 거쳐 지난달 28일 완공됐다.



원룸형 객실 40세대와 회의실, 체력단련장 등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숙소 사용기간은 입주 일로부터 2년이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숙소 입주 공무원들에게 초

심을 잃지 않고 자기 계발을 통해 군민과 함께 민생 현장을 발로 뛰어 군민을 내 가족처럼 섬기는 위민행정을 실천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도=이종수 js7777@kwangju.co.kr

무안군 먹거리전략팀 신설...푸드플랜 본격화

로컬푸드 생산농가 조직화 집중

무안군이 지역농업 활성화와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무안군농업기술센터 농정과 내 먹거리전략팀을 신설한다.

신설되는 먹거리전략팀은 무안형 먹거리계획(푸드플랜) 수립과 먹거리 기획 생산기반 조성, 먹거리지원 중간조직 육성, 학교급식 친환경 식재료 지원, 로컬푸드 생산농가 교육·홍보 등을 전담

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군은 2021년 지역단위 푸드플랜 구축 지원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돼 무안군 지역 푸드플랜 수립 연구용역을 추진해 지난해 하반기에 용역을 마무리 했다.

또한 민선8기 군수 공약사항으로 로컬푸드 생산자조직 지원확대가 포함돼 로컬푸드 생산농가 교육, 선진지 견학, 소포장재 지원, 생산 기반시설 지원 등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총 16억

3100만원을 로컬푸드 생산자 조직 활성화를 위해 투자할 예정이다.

군은 올해 로컬푸드 생산자 교육과 선진지 견학을 통해 무안형 푸드플랜의 핵심주체인 생산농가 의식 함양과 농가 조직화, 다품목 생산 기반 조성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다.

무안군 관계자는 "무안형 푸드플랜을 통해 중소농가에게는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고 소비자에게는 안전한 농산물 공급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먹거리 제공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무안=김민준 기자 jun@kwangju.co.kr

세월골

"항만, 지역경제 활성화 첨병 역할에 최선"

정문수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지역사회의 공동체로 주어진 소명과 역할을 다해 국민에게 사랑받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근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제30대 청장으로 취임한 정문수(57) 청장은 "국민의 입장에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기관의 위상을 높이고, 항만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는 이를 위해 모든 직원들이 ▲전국 여객 운송의 40% 이상을 담당하는 연안 해상교통 핵심 기관으로서 편리하고 안전한 해상교통 환경 구축



▲서남권 물류 중심 항만으로서 목표항의 지속적인 개발과 물류체계 개선 ▲서남권 어업 전진기지 기반 조성을 위한 국가어항 개발 등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을 당부했다.

정 신임 청장은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과와 항만물류기획과, 해양레저과,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홍보담당관실, 운영지원과 등 해양수산 관련 주요 요직을 두루 거쳤으며 해양·항만에 분야 전문가로 정평이 나 있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